

『捷解新語』 卷十의 文面解讀(Ⅲ)

林 昌 奎*

(e-mail : climsw@hanmail.net)

目 次

I. 序論

II. 本論

1. 「貴翰拜見、殊に、辱く千萬淺からず候」
2. 「御無音罷り過ぎ候處、御意掛けられの段」
3. 「即ち相届け申す可く候、萬々申し入る可く候條」
4. 「先刻、申し入れ候」
5. 「五三日中、御報に御意得申したく候」
6. 「手前、差合御座て、遺恨の處、相心得申し候」

III. 結論

I. 序論

日本語史적 관점으로 봤을 때 『捷解新語』 原刊本이 쓰인 시기는 일본 古代語가 近代語로 변해가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되며, 韓國語史的 관점으로도 中世國語에서 現代語로 변해가는 과도기에 해당되는 시기의 언어로 그 변화가 매우 심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다. 주지하는 바대로 『捷解新語』¹⁾는 原刊本, 改修本, 重刊本이라는 3종류의 판본이 있어 언어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서 日本語史, 韓國語史의 通時的 연구, 일한 對照研究 및 양국언어의 共時的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

* 濟州漢拏大學 觀光日本語科, 教授, 日本語學

1) 『捷解新語』 (全10卷·著者:康遇聖) 는 17C초기 사역원에서 만들어진 朝鮮人을 위한 구어체 중심의 일본어 교과서로서 原刊本은 1676년에 간행되었으며, 崔鶴齡 등에 의한 改修本은 1748년에, 重刊本은 1781년에 간행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卷一부터 卷九까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候文体書簡文인 卷十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候文体書簡文이라고 하는 자료적 성격으로 인해 통일성을 갖지 않는 卷十의 경우, 李太永(1997)에서 한국어 부분이 해석된 것을 제외하면, 그 어휘적 성격이나 문장구조에 대하여 아직까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林昌奎(2009a,b)에 이어서 原文인 일본어 본문을 『捷解新語』가 쓰여진 동시대의 문헌 등을 바탕으로 卷十의 八帳에서 十三帳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현대일본어와 국어번역을 보다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解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²⁾.

II. 本論

1. 「貴翰拝見、殊に、辱く千萬淺からず候」

다음 용례 1)에서 3)까지의 書簡文은 茶禮 후 일본 측이 보낸 편지(무사히 부산에 도착한 것에 대한 自祝의 뜻으로 目錄으로써 조선 측에 선물을 보내니 받아 줬으면 한다)³⁾에 대한 조선 측의 답신이다.

1) <原>⁴⁾ 貴翰拝見、殊に御渡海の祝として御目錄の通り、拝受仕り、辱く千萬淺からず候。8裏6~9表⁴⁾

貴翰拝見 殊爲御渡海之祝 御目錄之通 拝受仕 辱千萬不淺候⁶⁾。

2) 本稿에서는 『捷解新語』 卷十의 일본어 原文을 解讀함에 있어서 原刊本の 일본어문장을 중심으로 현대 일본어로 解讀한 후 改修本과 重刊本の 對譯을 종합하여 한국어 해석을 하였다. 또한 『捷解新語』가 일본어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였다는 점과 당시 일본어 어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가능한 意譯하지 않고 일본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자 했음을 밝혀 둔다.

3) 一筆啓達せしめ候。是式些少に御座候ととも、今度罷里渡りの祝までに、目錄を以つて進覽致し候。御笑留に於いては、忝く可候。東葉釜山浦も然る可き様に仰せ上げられ候て下さる可候。7裏5-8裏5 (一筆啓上致します。これは僅かではございますが、今回無事に渡航できた祝までに目錄をもって進上いたします。ご笑納いただけましたらありがたく存じます。東葉様、釜山浦様にもしかるべく申しあげてください。번역: 필자에 의함.)

4) <原>은 原刊本, <改>는 改修本, <重>은 重刊本, (李)는 李太永(1997)를 나타냄. 本稿의 表記는 讀者의 便宜를 고려하여 京都大学(1973)의 『三本対照捷解新語』에 의함. 이하 같음.

5) 文末에 표기한 숫자 등은 순서대로 帳、表·裏、文節을 나타냄. 이하 같음.

6) 原刊本 일본어 문장에 대응하는 번역은 일본식 漢文이다. 句讀点과 마침표는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

<改> 貴翰拜見、殊御渡海之祝爲 御目錄之通 拜受仕 辱千萬淺不候。

貴翰拜見、殊爲御渡海之祝 御目錄之通 拜受仕 辱千萬不淺候。

귀한 편지를 보오니 즈못渡海 하신 치하를 위하여 目錄대로 받잡고 千萬 감격 하야 하느니라.

<重> 貴翰拜見、御渡海之祝儀爲、御目錄之通、拜受仕、辱存奉候。

貴翰拜見、爲御渡海之祝儀、御目錄之通、拜受仕、辱奉存候。

貴翰을拜見 하오니 渡海 하신 치하를 위하여 目錄대로 받잡고 감격히너기 읍네

<李> 귀한 편지를 보니 자못 도해하신 치하를 위하여 목록대로 받고 천만 감격합니다.

우선 편지 시작 부분인 「貴翰拜見(きかんはいけん)⁷⁾」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貴翰」은 「相手を敬って、その手紙を言う語。貴書。お手紙」⁸⁾의 의미이며 「拜見」은 현대어와 동일한 「見る」의 謙讓形으로 파악되므로 「貴翰拜見」을 현대어로 옮기면 「お手紙、拜見いたしました」와 같이 옮길 수 있겠다. 이어지는 「殊に(ことに)」는 부사적 용법인 「その上さらに」로 파악되며, 「辱(かたじけなく)千萬(せんばん)淺(あさ)からず」의 「千萬」은 「物事を強調して言うのに用いる言葉」⁹⁾, 「数えきれないほど極めて甚だしいことをいう」¹⁰⁾ 등의 의미이므로 현대어로는 「たいへん」 혹은 「とても」의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淺(あさ)からず」는 「物事の程度が軽々しく取り扱えないほど重大である。」, 「Asacaranuアサカラヌ、深い(もの)または、非常に大きな(もの)」¹¹⁾의 의미이므로 「辱(かたじけなく)千萬淺(あさ)からず候」는 「たいへん恐縮に存じます」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일본어 原刊本에 대응하는 改修本은 동일한 반면 「殊に御渡海の祝として」가 重刊本에서는 「殊に」가 생략되어 있으며 원간, 개수본의 「御渡海の祝として」가 중간본에서는 「御渡海之祝儀爲(おとかいのしゅうぎとして)」로 표현이 한결 다듬어진 양상을 보인다.

대응하는 당시의 국어 번역을 살펴보면 「貴翰拜見」이 改修本에서 「귀한 편

7) 괄호 안의 히라가나 표기는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

8) 『日本国語大辞典』 『時代別国語大辞典』

9) 『邦訳日葡辞書』 『日本国語大辞典』 등

10) 『時代別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11) 『邦訳日葡辞書』 『時代別国語大辞典』

지를보오니」로, 중간본에서는 상대방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귀한」을 한자로 표기하여 「貴翰」으로, 개수본에서 「보오니」로 번역된 「拜見」 또한 ‘남의 글이나 편지를 공경하는 뜻’의 한자어 「拜見」를 사용하여 「貴翰을拜見호오니」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원간본과 개수본의 「殊に御渡海の祝として」를 「즈못渡海호신치하를위호야」로 번역된 것을 중간본에서는 「殊に」에 대응시킨 「즈못」을 생략한 형태인 「渡海호신치하를위호야」로 개수되어 있어 한글번역 또한 중간본에서 더욱 간결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용례 1)에 대하여 李太永(1997)에서는 改修本の 한글 대역을 그대로 현대어로 옮겨 「귀한 편지를 보니 자못 도해하신 치하를 위하여」로 번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 용례 1)을 原刊本 원문에 근거하여 현대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1) お手紙、拜見いたしました。また、御渡海のお祝いとして御目録の通りに拝受いたし、たいへん恐縮に存じます。

1-2) 귀한(貴翰) 잘 받아보았습니다. 게다가 도해(渡海)의 자축 선물을 목록대로 받고 매우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2. 「御無音罷り過ぎ候處、御意掛けられの段」

다음 용례 중의 「御無音(ごぶいん)」의 「無音(ぶいん)」은 『捷解新語』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邦訳日葡辞書』에는 「Votozurenaxi.(音づれ無し) 禮儀を欠き、訪問しないこと」로 실려 있으며 로드로게스의 『日本大文典』에는 「Bu in.(無音)はVotodzure,l,votodzururu coto naxi.(おとづれ、又は、おとづる事なし)」¹²⁾로, 『日本国語大事典』에는 「長い間音信をしなかったこと。ごぶさた。多く手紙文に用いる」로 정의하고 있다.

2) <原> 此の方よりこそ御無音罷り過ぎ候處、御意掛けられの段、却って迷惑に存じ候。9表5~9裏3

從此方杜 御無音罷 過候處、被掛御意之段、却而迷惑存候。

<改> 此方從杜 御無音罷過候處、御意掛被之段、却而迷惑存候。

從此方杜 御無音罷 過候處、被掛御意之段、却而迷惑存候。

우리게로서 먼저 선물을 하올디 넘너하시니 도로허민망하여이다.

<重> ----- 該当文 없음 -----

<李> 우리 쪽에서 연락 없이 지냈는데 염려하시니 도리어 민망합니다.

「罷り過ぎ候處(まかりすぎそうろうところ)」의 「罷(まか)り過(す)ぐ」는 「Macarisugui,uru,ita.マカリスギ、グル、ギタ(罷り過ぎ、ぐる、ぎた)通り過ぎる、経過する」¹³⁾ 혹은 「謙讓語で通りすぎる、時が経過する」¹⁴⁾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어 「御無音罷り過ぎ候處」는 현대어로는 「ご無沙汰にうち過ぎておりますところ」와 같이 파악할 수 있겠다. 이어지는 「御意掛けられの段」의 「御意(ぎょい)掛けられる」는 「貴人から何か品物を頂くことを意味する」 또는 「貴人などが、お心もかけてくださる。ご心配くださる。配慮してくださる」¹⁵⁾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위 용례는 각주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측이 보낸 「目錄」에 대한 답신으로서 전후 문맥을 고려하였을 때 대단히 적절히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御意掛けられの段」의 「段(だん)¹⁶⁾」은 形式名詞로 사용되어 위 용례에서는 「こと」로 파악할 수가 있겠으며, 따라서 「御意に掛けられの段」은 현대어로 「お氣遣い賜ったこと」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용례 2)의 원간본과 개수본의 일본어 문장은 동일하며 대응하는 重刊本은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改修本の 일본어와 한국어 번역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重刊本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어 文에 대응하는 당시의 국어 번역을 살펴보면 改修本の 대역뿐인데 「此の方よりこそ御無音罷り過ぎ候處」를 「우리게로서 먼저 선물을 하올디」로, 「御意に掛けられの段」 또한 「넘너하시니」로 옮기고 있어 일본어 原文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이 문장에 대해 중간본은 삭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重刊本の 改修 傾向을 나타내는 좋은 예의 하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다. 이 점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李太永(1997)에서도 일본어 본문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수본의 한국어 부분만을 현대어로 옮기고 있다.

13) 『邦訳日葡辞書』

14)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15) 『邦訳日葡辞書』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16) 『時代別国語大辞典』 : ⑤形式名詞として「~のだん」の言い方で用いられ、それが、移り変わっていく一連の事態における一局面であることを表す。『日本国語大辞典』 : 形式名詞のように用いられる。①上に述べることを統合して、体言格とする語。くだり。こと。手紙文などに用いられる。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 용례 2)를 일본어 原文에 충실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겠다.

2-1) こちらこそ無沙汰にうち過ぎておりますところ、このようにお氣遣い賜ったこと、かえって面目なく存ずる次第でございます。

2-2) 우리야 말로 아무소식 없이 지냈는데 이렇게 생각해주시니 도리어 면목 없습니다.

3. 「即ち相届け申す可く候、萬々申し入る可く候條」

다음 용례 중의 「東萊釜山浦へも、即ち相届け申す可く候」에 대응하는 改修本の 국어번역은 「東萊釜山에도 즉시 전하엿스오며」로 번역되어 있으며 李太永(1997)에서도 개수본의 번역을 현대 국어에 맞추어 「동래 부산에도 즉시 전하엿으며」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수본의 한국어만을 보고 현대어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3) <原> 東萊釜山浦へも、即ち相届け申す可く候。何れも、參を以って御禮萬々申し入る可く候條、多筆に能わず候。 9裏4~10表2

東萊釜山浦에도即相届可申候。何茂以參御禮萬萬可申候條、不能多筆候。

<改> 東萊釜山へ茂即相届申可候。何茂參以御禮萬萬申可候條、多筆能不候。

東萊釜山即相届可申候。以參御禮萬萬可申候條、不能多筆候。

東萊釜山에도 즉시 전하엿스오며 아모려나가셔인스틀 만만히하올거시매 편지로다못하느이다.

<重> 東萊釜山江茂、即相届申可候。何茂參以御禮申可候條、多筆能不候。

東萊釜山江茂、即相届可申候。何茂以參御禮申可申候條、不能多筆候。

東萊釜山에도 즉시 알외려 하옵니 아모려나가셔 인스하올꺼시매 편지로 다 못하옵니

<李> 동래 부산에도 즉시 전하엿으며 어떻게든지 가서 인사를 잘 할 것이므

로 편지로 다 못합니다.

重刊本の 일본어 부분과 대응하는 국어번역 「東萊釜山에도 즉시 알외려 ㅎ 읍니」를 보더라도 「候」는 終結形語尾로 파악하여 「東萊様、釜山浦様にもすぐにお届け申し上げます(東萊府使, 釜山僉使께도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번역되어야 일본어 原文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何れも、參を以って御禮萬々申し入る可く候條」에 있어서의 「萬々(ばんばん)」은 「幾千幾万も」¹⁷⁾ 혹은 「さまざまに数や量が多いこと。十分にその状態であるさま」「程度がはるかにまさること。また、そのさま」¹⁸⁾의 의미이며, 「候條(そうろうじょう)」의 「條(じょう)」는 「(候文の中で接続助詞のように用いられて)前の文を受けて、その当然の結果として次の文が成り立つことを示す。…によって」¹⁹⁾의 의미이므로 「何れも、參を以って御禮萬々申し入る可く候條」는 현대어로는 「いづれにしてもお伺いして幾重にも御礼を申し上げますので」와 같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注目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용례 1)의 개수본의 對譯文과 重刊本에서의 대응하는 국어번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용례 3)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점이 改修本과 重刊本の 일본어 본문에 대응하는 국어번역이다. 개수본의 국어對譯이 꽤 意譯化된 경향이 있는 반면, 重刊本에서는 일본어 본문 또한 수정되고 다듬어 진 것 外에도 대응하는 당시의 국어번역 또한 일본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와 原文인 일본어의 문장 전후의 문맥 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겠다.

3-1) 東萊様、釜山浦様にもすぐにお届け申し上げます。いづれにしてもお伺いして幾重にも御礼を申し上げますので今はこれで筆をおきます。

3-2) 東萊府使、釜山僉使께도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아무튼 찾아뵙고 거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4. 「先刻、申し入れ候」

다음 용례 4)에서 5)는 ‘封進宴을 의논하여 결정하고자’ 일본 측이 조선 측에

17) 『邦訳日葡辞書』

18) 『日本国語大辞典』

19) 『日本国語大辞典』

게 보낸 편지이다.

4) <原> 先刻書狀以って申し入れ候。相達し申し候や。10表3~10表5

先刻以書狀申入候 相達申候哉

<改> 先刻書狀以申入候 相達申候哉

先刻以書狀申入候 相達申候哉

몬저 편지로 하야 슬와습더니 즈세 보와습는지

<重> 先刻書狀以申入候 如何相達申候哉

先刻以書狀申入候 如何相達申候哉

몬저 편지로써 슬와습더니 얼지갑습던지

<李> 먼저 편지로 하여 아뢰었는데 자세히 받아 보았는지요?

용례중의 「先刻」는 「Xencocu.(せんこく) Mayenoqi.(前の刻) 過ぎた時、または、今より少し前」²⁰⁾ 「事が行われたのが、今より少し前のことであること」²¹⁾의 의미이므로 직역하면 「조금 전」으로 해석되지만 대응하는 한글번역 및 상황을 고려하면 부사적용법인 「前から。すでに」²²⁾로 파악하여 「이전부터」 혹은 「이미」 「먼저 번」 등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申し入れ候」의 「候」 또한 용례 3)과 같은 경우인데, 이는文末의 「候」를 連結形 語尾로 파악했다는 것이 된다. 「候」는 平安時代에서 鎌倉時代초기에 성립되어 일반화된 어휘로서, 주로 書簡文에 사용되었으며, 用言의 連用形에 접속되어 「~(で) ございます」 「~ます」의 의미를 나타내는 「丁寧形語尾」 또는 「謙讓形語尾」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申し入れ候」의 「候」 또한 종결형어미로 파악하여 「申し上げました」와 같이 해석되어야 原文에 충실한 解釋이라고 할 수 있겠다.²³⁾

改修양상을 살펴보면 원간·개수본의 「相達し申し候や(あいたしそろうや)」에 대응하는 중간본은 「如何相達申候哉(いかがあいたしそろうや)」로 되어있으며 대응하는 당시의 국어 번역은 개수본에서는 상당히 意譯한 형태인 「즈세보와

20) 『邦訳日葡辞書』

21) 『時代別国語大辞典』

22) 『日本国語大辞典』

23) 「候」에 관해서는 林昌奎(2009b) 참조.

습는지」로 되어 있는 반면 重刊本에서는 「如何相達申候哉」에 「언지간습던지」로 번역하고 있어 좀 더 일본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용례 4)를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된다.

4-1) 先刻書狀により申し上げました。届いておりますでしょうか。

4-2) 지난 번 서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받아 보셨는지요.

5. 「五三日中、御報に御意得申したく候」

다음 용례 중의 原刊本과 改修本の 「五三日中」에 대하여 改修本에서는 일본어 원문의 「五三日中」를 그대로 가져와 「五三日中」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重刊本에서는 「五三日内」로 표현이 바뀌어 있는데 대응하는 국어번역은 한자어를 그대로 「五三日内」로 옮기고 있어 한국어로서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번역이다. 「五三日」는 「日や年などを表す語に関して、漠然と少ない数を表す」²⁴⁾ 「数日」²⁵⁾를 의미하므로 「数日中に(수일내에)」로 파악되어야 함이 原文에 충실한 번역이며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5)<原>此の中より申し入れ候様に、封進宴席、此の五三日中仕り候様に、東萊釜山浦へ御相談成さる可く候。御報に御意得申したく候。10裏 1~11表1

自此中申入候様 封進宴席此五三日中仕候様東萊釜山浦에御相談可被成候 御報得御意申度候

<改>中自此 申入候様 封進宴席 此五三日中仕候様 東萊釜山浦江御相談成被可候 御報御意得申度候

自此中申入候様 封進宴席 此五三日中仕候様東萊釜山御相談可被成候 御報御意得申度候

거번브터슌드시 封進宴을 이五三日中에 ㅎ올줄을 東萊釜山에 의논ㅎ시고 회답을 듣고져ㅎ는이다

24) 『時代別国語大辞典』

25) 『日本国語大辞典』

<重>此中自申入候通 封進宴之儀 此五三日內 相整候樣 東萊釜山江御
相談成被 否 御報早早待奉候

先刻以書狀申入候 如何相達申候哉 自此中 申入候通 封進宴之儀
此五三日內 相整候樣 東萊釜山江 御相談成被 否 御報早早待奉候
거번브터슌드시 封進宴홀일을 이五三日內에 設行호올줄을 東萊釜山에
의논호시고 與否를 회답급급호옵심 기드리노이다

<李> 지난번부터 아뢰듯이 봉진연을 이 오삼일 중에 할 줄을 동래 부산에
의논하시고 회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어 한자어인 「五三日中」를 그대로 직역하여 「五三日中
에」와 重刊本에서는 「五三日內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일까.

『捷解新語』일본어 부분의 공통점은 원간본과 개수본의 부자연스러운 표현
은 重刊本에서 대부분 다듬어지고 수정되었는데 한국어번역 부분의 이러한 표
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인하여 『捷解新語』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한층 낮다는 평가이다²⁶⁾. 그러나 拙稿(2004,2005)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일본
어에 대응하는 당시의 국어가 존재하더라도²⁷⁾ 일본어 고유어와 일본어 한자어
에 대해서는 그대로 직역함으로써 일본어 어휘교육도 동시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목적의식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論한 바 있다. 즉 일본어를 직역하
여 제시함으로써 양국언어에 있어서 어휘의 상이점 또한 가르치기 위한 교육
적인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고 논하였다. 『첩해신어』가 당시 가장 뛰어난 일
본어교재였던 만큼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는 고도의 교육적인 배
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李太永(1997)에서도 개수본의 번역을 그대로 한글표기 「오삼일 중에」
로 옮기고 있는데 현대어 번역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어지는 문장 「東萊釜山浦へ御相談成さる可く候」의 「候」 또한 종결형어미
로 파악하여 「お話になってみてくださ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原刊·改修本の 일본어문장에 대응하는 重刊本은 「此の中より申し入れ候様

26) 이러한 현상을 鄭丞惠(2003)에서는 「일본어의 干涉(interference)」의 한 것이라고 논함.

27) 하나의 일본어어휘에 대하여 직역한 예와 대응하는 당시 국어의 예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たぶん/多分, 일딩, 거의, 다만, 거의다」 「ずいぶん/隨分, 힘써, ㄹ장」 「念を
入れる/念入호다, 念을들이다, 극진이호다, 넘너호다」 「振舞/振舞, 잔채」 「肝煎る/肝煎, 힘
쓰다」 「いちだん/一段, ㄹ장」 「しぜん/自然, 형여」 「早ふ/수이, 즉시, 일일」, 「色色/色色,
가지가지」

に」을 「此中自申入候通(とおり)」로 「封進宴席(ふうしんえんせき)」가 「封進宴之儀(ふうしんえんのぎ)」로 「此の五三日中仕り候様に」는 「此五三日内相整候様(このごさんにちうちあいとどのえそうろうように)」로 「御相談成さる可く候」는 「御相談成被否(ごそうだんなされいなや)」, 「御報に御意得申したく候」를 「御報早早待奉候(ごほうそうそうまちたてまつりそうろう)」 등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원간본과 개수본의 표현이 重刊本에서 표현을 달리할 경우 本稿에서는 原刊本の 일본어 표현에 중심을 두고 해독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했다. 拙稿(2009a,b)에 있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捷解新語』의 底本은 역시 原刊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검토 결과에 따라 용례 5)를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겠다.

5-1) 先頃よりお話しあげておりますように、封進宴席をこの数日中に執り行うように東萊様、釜山浦にお話になってみてください。書状にてご意向を承りたく存じます。

5-2) 지난번부터 말씀 드린 대로 封進宴을 수일 내에 행할 수 있도록 東萊府使 釜山僉使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의향을 받고자 합니다.

6. 「手前、差合御座て、遺恨の處、相心得申し候」

다음 용례 6)은 앞서 ‘封進宴을 의논하여 결정하고자’ 일본 측의 편지에 대한 조선 측의 답신이다.

다음 용례 중의 「手前(てまえ)」를 改修·重刊本の 한글번역은 「이편게, 이편게」로 되어 있으며, 이태영(1997)에서도 「이편에게」로 옮기고 있는데 이것은 1인칭 단수 「私/저」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手前」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自称。やや謙遜していう語。わたくし。自分。自己」²⁸⁾의 의미를 나타내며 문맥의 전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6)의 용례 중의 「手前」는 1인칭 단수 「私/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差合御座て」의 「差合(さしあい)」는 「Saxiai.:サシアイ(差合·指合)さしきわり、または、用事」, 「さしきわり。さしつかえ」²⁹⁾ 등의 의미로 「手前差合御座て」는 「私、事情があつて/제게 사정이 있어서」와 같이 풀이할 수 있겠다.

28) 『邦訳日葡辞書』 『日本国語大辞典』 등

29) 『邦訳日葡辞書』 『日本国語大辞典』

6) <原> 二三日は、手前差合御座て御見舞申さず、遺恨の處、今朝より兩度の御狀悉に拝見、封進宴席の儀、相心得申し候。東萊釜山浦、御兩所へ御相談申し候て、返事申し入る可候。 11表2~12表3

二三日者 手前指合御座而 御見舞不申遺恨之處、自今朝 兩度之御狀具拝見、封進宴席之儀、相心得申候。東萊釜山浦 御兩所へ 御相談申候而 返事可申入候。

<改> 二三日者 手前指合御座候而御見舞申不遺恨の處、今朝自 兩度之御狀具拝見、封進宴席之儀、相心得申候。東萊釜山御兩所 御相談申候而返事申入可候。

二三日者 手前指合御座候而 御見舞不申遺恨之處、自今朝 兩度之御狀具拝見、封進宴席之儀、相心得申候。東萊釜山 御兩所 御相談申候而返事可申入候。

二三日은 이편게 연고인스와 문안도 숲지못흐옵고 恨흐옵니 오늘아침 두순편지를 즈세보와스오며 封進宴홀일은 아라스오니 東萊와 釜山 두 곳에 의논흐옵고 회답을 하리이다

<重> 三四日者 手前差合御座候而御見舞申不候處、今朝自 兩度之御狀具 拝見 封進之儀、委細相心得申候。東萊釜山 御兩所江 御相談申候而 返事申入可候。

三四日者 手前指合御座候而 御見舞不申遺恨之處、自今朝 兩度之御狀具 拝見、封進宴席之儀、相心得申候。東萊釜山 御兩所 御相談申候而返事可申入候。

三四日은 이편게 연고인스와 보음을 숲지못흐옵더니 오늘아침부터 두순편지를 즈세 보와스오며 封進宴홀일을 즈세히아라스오니 東萊와 釜山 두곳에 의논흐옵고 회답흐오리

<李> 이삼일은 이 편에게 연고 있어 문안도 아되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아침 두 번의 편지를 자세히 보았으며 봉진연할 일을 알았으니 동래와 부산 두 곳에 의논하고 회답을 할 것입니다.

「御見舞申さず、遺恨の處」의 「遺恨(いこん)」은 「残念に思うこと。思いをのこすこと。心残り。遺憾。悔いを残すこと。残念」³⁰⁾ 등의 의미이므로 「御見舞

30) 『邦訳日葡辞書』『日本国語大辞典』

申さず、遺恨の處」는 현대어로 「御挨拶申さず、気になっておりましたところ/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에 걸렸는데」와 같이 해석되어야 하며, 「兩度の御状(ごじょう)悉に拝見」의 「悉(つぶさ)に」는 「細密に。詳細に。完全なさま。詳細であるさま。詳しいさま」³¹⁾이므로 「兩度の御状(ごじょう)悉に拝見」은 「二度のお手紙をとくと拝見させていただきます/두 차례에 걸친 편지를 잘(자세히) 받아 보았습니다」와 같이 옮길 수 있겠다.

또한 「相心得申し候(あいこころえもうしそろう)」에 있어서 「相(あい)」는接頭辞로써 「動詞などに冠して、その動詞の意味する動작을強調し、また、書状などの改まった言い方として使われて、丁寧の意を加える」³²⁾의 의미이므로 「相心得申し候」는 현대어로 「承知いたしました」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原文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原刊本과 改修本の 내용은 동일하나 여기서도 重刊本에서는 다소 표현을 달리 하여 대응시키고 있다. 原刊本과 改修本の 「二三日は」가 重刊本에서는 「三四日者(さんしにちは)」로, 「御見舞申さず、遺恨の處」가 「御見舞申不候處(おみまいもうさずそろうところ)」, 「封進宴席」는 「封進之儀(ふうしんのぎ)」, 「相心得申し候」에는 부사적 용법의 「委細(いさい)」³³⁾를 덧붙여 「委細相心得申し候」로 改修되어 있다.

따라서 용례 6)을 현대어로는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겠다.

6-1) この二三に日は私、事情により御挨拶申さず、気になっておりましたところ、今朝から二度のお手紙をとくと拝見させていただきます。封進宴席の件承知いたしました。東萊様、釜山浦様お二方にお話し申し上げて御返事をいたします。

6-2) 이삼 일 간 제게 사정이 있어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두 차례에 걸친 편지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封進宴에 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東萊府使 釜山僉使 두 분께 여쭙고 나서 회답을 드리겠습니다.

31) 『邦訳日葡辞書』 『古語大辞典』

32) 『時代別国語大辞典』

33) 『邦訳日葡辞書』: Isai イサイ(委細)こまかなこと、または、詳細に。『日本国語大辞典』: 細かに、くわいさま。また、細かいことまですっかり。すべて。

Ⅲ. 結 論

이상으로 그동안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捷解新語』 卷十 중, 八帳에서부터 十二帳에 나타나는 候文体書簡文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本稿에서는 선행연구에서 卷十의 어휘적 성격이나 문장구조에 대하여 아직까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 혹은 잘못 해석된 부분을 수정하고, 현대 일본어와 국어번역을 일본어 본문과 문맥, 그리고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解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卷十의 자료적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捷解新語』의 전체 改修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捷解新語』의 현대어 解讀에 있어 가장 타당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改修本の 부자연스러운 한글번역이 重刊本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改修本과 重刊本の 刊行時期가 그다지 멀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휘의 시대적 변천이라기보다 당시의 어휘로서도 부자연스러웠던 改修本の 직역에 가까운 한국어가 重刊本에서 수정되고 다듬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改修本에서 한일 양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重刊本에서 삭제된 점은 중간본의 개수 경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측면으로서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또한 한국어 번역의 한 특징으로서 일본어를 직역하여 제시함으로써 양국언어에 있어서 어휘의 상이점 또한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배려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예로 일본어 「五三日中」를 그대로 직역하여 「五三日中에」와 重刊本에서는 「五三日內에」로 번역한 것은 일본어에 대응하는 당시의 국어가 존재하더라도 일본어 고유어와 일본어 한자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직역함으로써 일본어 어휘교육도 동시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목적의식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論하였다.

『捷解新語』의 올바른 현대어 解讀이 완성되었을 때, 『捷解新語』 연구가 한층 완결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卷十의 현대어 解讀을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参考文献】

- 李太永(1997) 『譯註 捷解新語』太學社
- 林昌奎(2009a) 「『捷解新語 卷十』의 文面解讀」 『日本語學研究』第25輯
- 林昌奎(2009b) 「『捷解新語』卷十의 文面解讀(Ⅱ)」 『日本文化學報』第42輯
- 林昌奎(2007b) 「『捷解新語』의 資料的價值」 『日本語學の研究と理解』, 어문학사.
p.315-355
- (2007a) 「『捷解新語』의 他動詞について」 『日本學報』第70輯
- (2005) 「『捷解新語』의 漢字翻譯について(その二)」
『日本語學研究』第13輯
- (2004) 「『捷解新語』의 漢字翻譯について」 『日本語學研究』第8輯
- (2003c) 「自動詞「背く」에 대하여」 『日本語學研究』第8輯
- (2003b) 「『捷解新語』における 狀態述語と共起する「を」について」
『日本文化學報』第16輯
- (2003a) 「『捷解新語』における 二重「を」構文について」
『日語日文學研究』44輯
- (1998c) 「『捷解新語』의 자동사「あう」와 共起하는 조사「を」에 대하여」
『日語日文學研究』32輯
- (1998a) 「『捷解新語』における「を」格の誤用について」 『月刊言語』2.
大修館書店
- 鄭丞惠(2003) 『조선후기 왜학서 연구』 대학사
- 韓美卿(1995) 『捷解新語における 敬語研究 I・II』 도서출판 박이정
- 梅田博之・林昌奎(2000) 「『捷解新語』의 使役構文」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月印 p.39-60
- 辻星児(1975) 「原刊「捷解新語」의 朝鮮語について」 『国語国文』44-2、
京都大学国語学国文学研究室
- (1997) 『朝鮮史における『捷解新語』』 岡山大学文学部
- 中田祝夫編(1985) 『古語大辞典』、小学館
- 室町時代語辞典編集委員会(1985-1994) 『時代別国語大辞典室町時代編』、小学館
-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刊(1973) 『三本対照捷解新語本文編』
-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刊(1973) 『三本対照捷解新語积文・解題編』
- 日本大辞典刊行会(1979-1981) 『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全十卷)、小学館
- J.ロドリゲス著、土井忠生訳(1955) 『日本大文典』三省堂
- 土井忠生、森田武他訳(1980) 『邦訳日葡辞書』、岩波書店

要 旨

本稿は、従来の研究では研究対象から排除されてきた『捷解新語』巻十の八帳から十三帳までの候文体書簡文につい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即ち、本稿では、巻十の語彙の性格及びそれぞれ語彙の特徴、文の構造について未だに検討されていないことに対し、『捷解新語』の書かれたほぼ同時代の文献である『邦訳日葡辞書』、『日本大文典』などの文献、『時代別国語大辞典』『日本国語大辞典』などの辞書類等、多数の参考文献を用い、巻十に現れる個々の語義を正確に把握すると共に、日本文及び対応するハングル対訳、更には文の前後の状況までを考慮の対象とし、巻十の文面を繊細で且つ緻密に解説を試みたものである。こうした検討により巻十の資料的価値をより正しく評価できると共に、『捷解新語』全体の改修傾向までを改めて確認できると思われたからである。また、こうした研究が『捷解新語』を現代語に解説するに当たって、より妥当な原則や方法を提示できるからである。

検討の結果、改修本の不自然なハングル翻訳が重刊本においてより自然な表現に改修されている傾向が見られた。改修本と重刊本の刊行時期がそれほど離れていないことを考慮に入れると、語彙の時代的変遷というより、当時の語彙としても不自然だった改修本の直訳に近いハングル対訳が重刊本において修正され、より自然な形態に改められたと考えられる。また、改修本において日・韓両言語の文が一致しない場合には重刊本においては対応する文が省略乃至削除されていることに対して注目を要する。つまり、重刊本の改修傾向を表す一つの重要な側面を現すものと思われ、これからも注目すべきところであると考えられる。

更に、日本文に対応するハングル対訳の一つの特徴として上げられることであるが、日本語の語彙を直訳して対訳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日本語の「五三日中」を改修本において「五三日中예」に、重刊本では「五三日内예」にしているが、これは一見すると誤謬であると考えられがちである。こうした現象について本稿では決して誤謬でなく、日本語に対応する当時の韓国語の語彙が存在しているも、自然な表現と日本語を直訳したものの両方を示すことによって、両言語における語彙の相違も教えられるという、はっきりした目的意識によるものであると論じた。

『捷解新語』の正確な現代語解説が完成した際、『捷解新語』の研究がより一層の完結性を確保できると考え、これからも巻十の現代語解説の完成を目指したい。

キーワード：捷解新語、巻十、候文体書簡文、誤謬、文面解説、日本語テキスト

투 고 : 2011. 5. 31

1차 심사 : 2011. 6. 11

2차 심사 : 2011. 6. 25